

韓國經濟發展과 시멘트工業

國家基幹產業으로서 시멘트工業의 役割

서울신문 論說委員 全英淳

(一)

일반적으로 「시멘트」消費量은 그 나라의 文化의 尺度라고 한다. 經濟규모가 확대되고 文化水準이 向上됨에 따라 「시멘트」需要도 漸次 增大하는 傾向이 있다.

우리 나라의 「시멘트」需要量과 國民 總生産의 推移를 比較해 보면 經濟規模의 成長率을 월등히 上廻하는 「시멘트」需要가 있었다. 지난 第1次 5 年計劃中 年平均 經濟成長率은 8.4%였으나 輸入分마저 包含한 國內「시멘트」消費量은 年平均 20%이상으로 需要量이 늘었다.

「시멘트」需要가 經濟成長을 앞서고 있는 것은 다시 말하면 여태까지의 經濟成長의 主導부문이 第2次産業 즉 鑛業, 製造業 및 建設業의 成長실적에 크게 힘입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鑛工業은 第1次 5 年計劃中 우리 나라 經濟를 成長시킨 先導産業이다. 이로서 工業化를 한 걸음 한걸음 實現하여 過剩人口를 흡수하고 1人當所得과 生活水準을 向上하려는 開發政策의 基本目標와도 符合됨을 말한다.

이러한 鑛工業의 成長은 國民經濟의 持續的인 成長에 重要한 役割을 담당했다.

表1에서 보는바와 같이 鑛工業은 1次 5 年 期間中 平均 36.9%라는 높은 成長寄與率을 보였다. 그리하여 鑛工業部門의 높은 成長率이 國民總生産의 계속적인 成長을 主導하여 왔으며; 表2에서 보는 바와 같이 附加價值構成比에 있어서도 鑛業은 1960年의 2.1%에서 66년에는 1.6%로 若干 떨어졌지만 製造業은 13.6%에서 18.0%로 大幅 增大했다.

그리하여 鑛工業全體로는 15.7%에서 19.6%로 增加를 보았고 産業構造上 工業化로 크게 前進한 것이다.

이러한 成長實績을 鑛工業生産指數로 보면 66年의 生産活動의 增大는 62년에 비해 約 2倍로 늘어났다.

鑛工業生産의 현저한 增加는 大體로 穀物價格 安定에 따르는 非穀物消費財의 相對的인 需要增加, 輸送用機械, 「시멘트」, 「에너지」開發을 위한 投資需要와 工產品에 대한 輸出需要가 급격히

증가하여 왔다는데 基因하는 것이다.

<表 1> 鑛工業成長率 및 成長寄與率

단위 : %

| | | 1962 | 1963 | 1964 | 1965 | 1966 | 平均 |
|-----|-------|------|------|------|------|------|------|
| 成長率 | 鑛工業 | 15.7 | 16.5 | 5.4 | 21.1 | 15.2 | 14.8 |
| | 鑛業 | 23.1 | 9.2 | 12.6 | 10.0 | 6.4 | 12.3 |
| | 製造業 | 14.9 | 17.3 | 4.6 | 22.3 | 16.1 | 15.0 |
| | 國民總生産 | 3.5 | 9.1 | 8.3 | 7.4 | 13.4 | 8.3 |
| 寄與率 | 鑛工業 | 67.3 | 30.1 | 11.6 | 49.4 | 26.2 | 36.9 |
| | 鑛業 | 9.6 | 1.7 | 2.6 | 2.5 | 1.0 | 3.5 |
| | 製造業 | 57.7 | 28.4 | 9.0 | 46.9 | 25.2 | 33.4 |
| | 國民總生産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資料 : 韓國銀行

<表 2> 鑛工業部門附加價值構成比

단위 : %

| | 1962 | 1963 | 1964 | 1965 | 1966 | 平均 |
|--------|------|------|------|------|------|------|
| 鑛業·採石業 | 1.9 | 1.7 | 1.8 | 1.8 | 1.6 | 1.8 |
| 製造業 | 14.6 | 14.9 | 15.6 | 17.7 | 18.0 | 16.2 |
| 鑛工業 | 16.5 | 16.6 | 17.4 | 18.5 | 19.6 | 17.7 |
| 國民總生産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우리 나라의 鑛業生産은 石炭一邊倒의 生産이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石炭埋藏量은 數10年內 限界點에 다달을 것임으로 油類로의 代替가 필요하다.

製造業의 成長은 生産過程의 迂廻化와 그 用途에 따라 消費財, 中間財 및 投資財로 나누어서 보면 第1次 5個年計劃中 製造業에서 가장 높은 成長을 보인 業績은 機械, 金屬과 土石 및 유리製品을 그 內容으로 하는 投資財工業이었다.

이와 같은 製造業, 工業의 成長은 第1次 5個年計劃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 過去에도 持續되어온 추세였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가 1次 5個年計劃中 過去보다 더 顕著하게 나타남에 特色이 있다.

投資財工業은 1次 5個年計劃中 刮目할만큼 成長했으나, 아직도 適正한 操業규모를 유지하면서 國際競爭力에 對處해 나갈수 있는 量産體制를 갖추기에는 國內市場의 與件上 充分하다고 할수 없다.

우리나라 製造業육성을 위해 政府가 쓰는 갖가지 助長政策은 여러가지가 있다. 한편으로 輸

入代替를 위한 施設導入을 積極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貿易統制 및 關稅政策에 의하여 對外的인 競争을 防止하는데도 注力한바 있다. 또한 輸出産業으로의 轉換을 위하여 갖가지 制度的인 恩典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製造業이 앞으로 보다 높은 成長을 이룩하는데는 몇가지 課題가 해결되어야 한다. 輸出市場의 擴大는 언젠가 限界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경우 國內市場이 擴大되지 않는 限 그 成長率は 낮아질 것이다.

1次 5個年計劃中 年平均 輸出增加率は 44%였으며 이것은 世界貿易의 增加률을 約 4倍나 넘는 것이었다. 우리나라 輸出이 世界貿易에서 차지하는 比重은 아직도 極히 미미하므로 效果的인 財政金融政策으로 「인플레이」를 억제하면서 生産性を 올리는 諸般 産業政策이 尤묘있게 쓰여진다면 成長의 餘力은 넉넉하다고 할수 있다.

67年中 「시멘트」需要의 急増과 相關關係가 있는, 建設 및 施設投資상황을 보면 第1次 5個年計劃에 의하여 推進되어오던 主要計劃事業의 完工과 第2次 5個年計劃의 推進에 따른 投資需要의 增加 및 活潑한 外資導入에 힘입어 前例없이 활발한 樣相을 보였다.

먼저 建設事業을 主要産業別로 보면 農業部門에 있어서는 開墾, 野山開發等에 의한 耕地 整理 및 擴張事業이 推進되었고 第2次 5個年計劃事業으로 推進되고 있는 水利干拓事業도 年中 東津江干拓事業, 金海干拓事業, 全南干拓事業등이 눈부신 進捗相을 보였다.

이와 함께 瑞山, 扶餘, 榮山江地域의 干拓事業도 이미 基礎工事が 着手되고 있다. 또 灌溉, 開墾, 食糧增産, 發電등을 위한 多目的 댐事業에 있어서는 南江댐工事が 계속 推進되고 있으며 昭陽江댐工事도 進展을 보이고 있다.

2次産業部門에 있어서도 建設活動이 매우 활발하여 九老洞輸出工業團地가 完工되었고 內陸工業團地로서의 大邱工業團地와 全州工業團地가 1969年 竣工目標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年産 3百萬屯규모의 綜合製鐵工場을 위한 迎日灣沿岸의 製鐵工業團地가 起工, 建設에 着手되었으며 各種 石油化學系列工場이 들어설 蔚山工業團地와 精油 및 同關聯工場이 들어설

麗水工業團地 그리고 庇仁工業團地 및 鎭海業團地도 계속 建設 推進中에 있다.

한편 製造業部門에 있어서는 그동안 計劃事業으로 推進되어오던 肥料, 「시멘트」, 鐵鋼等 重要 産業施設이 竣工됨으로써 重工業의 進出이 현저해졌다.

67年中 嶺西化學과 鎭海化學 韓國肥料가 各其 竣工을 보아 尿素肥料의 國內自給을 期할수 있게 되었고 이 밖에도 磷酸質肥料生産을 하는 豐農肥料長項工場이 竣工을 보았다.

「시멘트」는 67年中 東洋「시멘트」工場과 雙龍「시멘트」工場の 擴張事業이 完工되어 年中 82萬屯의 生産能力이 追加된 것이다.

鐵鋼工業部門은 67年中 韓國鐵鋼馬山工場, 聯合鐵鋼의 冷間壓延薄板工場등이 竣工되었고 合成樹脂工場의 原料産業인 共榮化學의 P.V.C 工場, 「세르판」級生産工場등이 完工되었다.

한편 纖維工業部門에 있어서는 韓國麻紡工場을 비롯하여 韓一合纖馬山工場, 東洋合纖蔚山工場 및 韓一「나이론」擴張事業등이 67年中에 各各 竣工을 보았다.

이 밖에도 罐麥配生産施設과 東洋에서 擴張事業 및 國內最初로 波狀金屬피복「케이블」을 生産하게 될 金星社「케이블」工場 擴張事業등이 年中 完工을 보게 된 것이다.

이 이외에도 外國投資家の 直接投資를 비롯하여 鑛業生産施設의 擴充, 電源開發, 交通, 通信, 港灣 및 道路事業등 公共部門의 投資가 늘어 社會間接資本을 整備하는데 注力했으며, 그와같은 政府財政을 主軸으로 한 投資擴大政策은 곧 民間企業의 왕성한 投資活動을 일으키게 했다.

昨年中 70年末의 가뭄으로 因한 莫甚한 農業 凶作에도 不拘하고 年中 8.4%라는 높은 經濟成長을 기록하게 된데는, 經濟가 鑛業, 製造業, 建設業等 第二次生産의 成長이 눈부신바 있었으며 또 社會間接資本을 擴充하는데 不斷한 努力을 傾注했기 때문이다.

(二)

「시멘트」工業이 우리 나라에서 本格的인 發展

을 본것은 지난 1次 5 個年計劃중의 일이다. 1962年の 生産能力이 不過 80萬屯에 不過하였기 때문에 國內消費需要不足分 全量을 海外輸入에 依存하던 것이 67년에 와서는 244萬屯으로 生産이 늘어났다. 올해에도 360萬屯의 供給을 豫想하고 있다.

이와같이 「시멘트」生産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韓國經濟이 産業基盤을 튼튼히 쌓는데 不可缺한 資材란 認識아래서 政府當局의 積極인 外資導入 支援에 힘입어 民間企業家가 先驅인 役割을 다했기 때문이다.

2次 5 個年計劃이 끝나는 1971년에 가서는 約 800萬屯의 生産을 計劃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2次 5 個年中 政府의 戰略事業으로 化學, 鐵鋼 및 機械工業을 建設하고 工業高度化의 기틀 잡는데 「시멘트」供給은 重要한 役割을 할 것이며 70年代에 가서 10億弗의 輸出을 달성하여 輸入 代替를 促進하여 國際收支를 改善하는데 큰 寄與를 다할 것이다.

현재 國土建設事業 및 工業化를 위한 施設擴充 그리고 農漁村開發을 기하기 위해 올해는 約 50萬屯 乃至 80萬屯의 「시멘트」를 輸入할 計劃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시멘트」工場の 계속된 生産能力擴大를 國內需要를 充當하게 되면 70年代에 가서는 相當한 量의 「시멘트」를 海外에 輸出하게 될것은 勿論이다.

自由競爭을 前提로 삼고 있는 資本主義經濟아래서는 企業合理化에 대한 要請은 크다. 앞으로 輸出을 달성하고 外貨獲得을 기하자면 合理化에 의한 「코스트」引下는 「시멘트」業界가 지니는 共通된 課題라고 볼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시멘트」工業이 1次 5 個年計劃中 비약적인 發展을 거쳐 오늘날 不斷히 合理化努力을 계속하고 있으며, 安定된 供給價格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시멘트」工業의 合理化는 다만 個個企業의 問題라기 보다 오히려 「시멘트」業界全體의 問題로서 그에 대한 國家的 要請도 크다.

다시 말하면 앞서 말한바와 같이 「시멘트」는 國土建設, 産業基盤의 育成強化에 必要不可缺한 重要建設資材로서, 그 價格도 國家的 見地로 보

아低廉할 것이 所望스럽다.

우리나라 經濟의 高度成長達成을 目的으로 하고 있는 이때 社會的 間接資本의 擴充強化와 生産構造와 高度化를 指向하는 만큼 安定된 價格과 풍부한 量의 「시멘트」를 要望하는 소리는 크다.

「시멘트」生産의 合理化가운데서 特히 注目될 것은

- ① 單位工場生産能力의 擴大
- ② 燃料消費量의 節減
- ③ 勞動生産性의 向上등을 들수 있다.

單位工場生産能力의 擴大는 말할것도 없이 大量生産에 의한 利益을 目的으로 하는 것이다. 「시멘트」工業은 裝置生産이기 때문에 一工場當 生産量을 크게 하면 할수록 單位生産量當 勞務費, 其他의 間接費가 적게 드는 傾向이 뚜렷하다. 이를테면 燒窯等 主要設備의 大型化, 一工場當 燒窯數의 增加, 貯藏能力, 包裝能力의 擴大等 一聯의 工場大型化, 大規模生産化에의 努力은

合理化施策가운데서 重要的 대목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燃料費節減에 關해서는 「시멘트」生産費中 燃料가 차지하는 比重이 크므로 이를 節減하는 問題는 重要하다. 이 問題를 根本的으로 解決하자면 重油나 天然「가스」를 使用하는 燒成方式을 採用하고 主熱源을 漸次 價格이 비싼 石炭으로 부터 價格이 싼 重油, 天然「가스」로 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重要하다.

輸送面의 合理化도 無視할수 없는 問題이다. 全國의 「시멘트」需要가 늘어남에 따라 「시멘트」輸送量을 增大하고 있으며 輸送費가 「시멘트」販賣「코스트」에서 占하는 比重도 크다.

「시멘트」輸送合理化의 가장 有效한 方法으로는 先進外國에서 例를 볼수 있는 「바라」輸送體制를 세울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荷役費, 容器費의 節約, 輸送時에 「시멘트」減耗가 없는 등 直接, 間接으로 出荷經費를 大幅 節減시킬수 있는 利點이 있기 때문이다.

第一回 韓國貿易博覽會 開催

場 所： 九老洞 第2 輸出産業工業團地

期 間： 1968. 9. 9~10. 20 (42日間)

政府館에 가시면

第一次, 第二次 經濟開發 5 個年計劃의 代表的
業績인 시멘트 工業의 發展相을 보실 수
있고

業種館에 가시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量産體制와
國際的 品質을 갖춘
시멘트 製品을 보실 수 있습니다

主 催： 社團 法人 韓國貿易博覽會

主 管： 大韓貿易振興公社